

개 회 사

위·지·통(위성·지리·통계) 융합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탄소제로2050과 지역균형발전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 조덕호(대구대 교수)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지·통(위성·지리·통계) 융합 빅데이터를 활용한 탄소제로2050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동계학술세미나와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대 변혁이 일어난 가운데서도 5월에 “인구소멸”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 7월에는 “수능을 없애면 노벨상이 나온다”라는 주제로 교육뉴딜 정책토론회, 10월에는 “3-3-3 지역균형발전과 구독경제”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국제학술대회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오늘은 “위·지·통 융합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탄소제로2050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도 많은 분들의 공력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회원 여러분들과 하성규 정책자문위원장 및 전임회장님을 포함한 임원진 덕분에 우리 학회가 주요 이슈들을 선도적으로 다루면서 실천적 정책대안을 계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도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해 주신 환경부,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국토연구원, LH 토지주택연구원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관련기관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직접 축하까지 해 주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룡 이사장님,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님,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황희연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학회를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가천대학교 김규식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공력을 들려 매번 온라인 학회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해 주신 학회 임직원들과 기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학원생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기조 강연을 하시는 현재 중앙대학교 교수이며, 미국 SCAG에서 근무하신 최성연 박사님, 정철모 전주대 명예교수님과 특별히 장학금까지 기탁해 주신 고병호 청주대 명예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학술상(저술부분)을 수상하신 소진광 가천대 명예교수님, 학술상(논문부문)을 수상하신 LH 공사 손순금 박사님, 김호철 단국교수님과 그리고 임형백 성결대 교수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간 학회를 훌륭히 이끌어 주신 임경수 명예회장님과 공로상을 수상하신 윤철석 단장님, 우수직원상을 수상한 노유정 사무국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세상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으며, 변화를 넘어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물에 인공지능을 삽입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활용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4차산업혁명의 핵심 3대요소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로 인공지능에 들어 있는 수리적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부정책에서부터 일상 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도 빅데이터 활용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도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을 개정하였다. 그렇지만 이것 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거의 모든 데이터는 공중과 해양을 포함한 국토 공간 어디에서 수집된 것이지만 아직 데이터 생산의 원천인 위성, 지리정보, 통계데이터의 융합에 대한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1990년대부터 위성영상과 통계데이터를 통합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국가 기반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생산의 핵심은 위성, 지리정보 및 통계 데이터에 좌표(geo-code) 값을 공유하고, 데이터 구조를 통일시켜 언제든지 통합 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의 생산, 분석, 활용에 관한 “빅데이터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개발학회를 포함한 데이터 수요기관, 국가기상위성센터, 국토지리정보원, 통계청 등 데이터 공급기관, 행안부, 국토부, 과기부 등 정부부처와의 통합 빅데이터 컨트롤 타워가 신속히 구축되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빅데이터의 사용에는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위·지·통 융합 빅데이터는 제4차산업혁명의 기본이며,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가핵심 인프라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향후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탄소제로 2050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이 상쇄돼 온실가스 배출이 '0'인 상태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사업으로 노후 건축물, 공공임대주택의 친환경 시설 교체, 전기·수소차 보급 및 관련 인프라 증설, 저탄소 그린 산단 조성,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원확대, 그린구독공단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더구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국토불균형성장이 국가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엄청난 국력 낭비와 국토자원의 비효율적 이용을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지혜가 이번 동계학술대회를 통하여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가 우리나라를 선도국으로 이끄는 데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코로나19로 모든 회원을 다 모시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5일

한국지역개발학회 임원진 일동

chodh0115@gmail.com